

스와힐리어와 동아프리카공동체

양철준 HK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주요 내용

-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공용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입법 의회는 영어와 함께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됨.
- (지역통합과 언어의 문제)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결정은 언어를 통한 공통의 정체성 구축과 긴밀하게 관련됨.
- (스와힐리어의 위상) 스와힐리어가 중동부 아프리카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공용어 지정의 맥락

☒ 동아프리카 공동체 공용어 지정과 목적

-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동맹에서 시작된 지역 통합이 2000년 동아프리카공동체로 재발족
 - 1967년 최초로 발족하였으나 1977년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해체
-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동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와 중부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부룬디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역공동체로,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음.
 - 2013년에는 10년 이내로 통화동맹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은 의정서에 서명
-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남수단도 내전이 종식되는 대로 동아프리카공동체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
- 동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영어권 국가들이며 중부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부룬디는 벨기에의 식민통치를 받은 불어권 국가임.
- 식민종주국의 언어가 아닌 아프리카의 고유어를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공용어로 지정하는 결정은 상징성이 큼.

☒ 동아프리카 공동체와 스와힐리어 공용어 추진 목적

-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가치의 공유와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며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존중이 불가결
- 문화적 정체성의 구축과 형성에서 언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데, 이들 국가를 묶어내는 공통의 언어가 스와힐리어로, 탄자니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며 케냐와 우간다에서도 널리 통용됨.
- 프랑스어권인 르완다에서는 50%, 부룬디에서는 70%의 인구가 스와힐리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스와힐리어는 영어권과 불어권을 넘나드는 지역 공통의 언어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으며, 부룬디의 경우 2007년부터 스와힐리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함.

- 스와힐리어는 특정 종족과 결부되지 않은 중립적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종족집단의 구성원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초 종족적 언어라는 장점을 가짐.
- 국경 교역에서는 스와힐리어가 공통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스와힐리어는 탄자니아에서 초등교육의 언어이며 케냐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우간다도 스와힐리어가 선택과목이었지만 동아프리카공동체 국가들과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와힐리어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

2 공용어 지정과 지역통합

☐ 지역통합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

-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립 이후에도 영연방¹⁾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²⁾를 통해 아프리카에 지속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데, 이들 기구의 가맹국들을 통합시키는 공통분모는 식민통치와 언어임.
- 언어는 사회적 통합과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지역통합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함.
 - 스와힐리어는 지역 정체성의 상징으로, ‘하나의 국민, 하나의 운명체’라는 동아프리카공동체의 모토에도 부합
 - 정치적 민주화, 경제 발전,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국민이 잘 이해하는 언어로 소통하려는 적극적 노력 절실함.
 -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역공통의 언어로서의 스와힐리어에 대한 가치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식민종주국의 언어로 지역통합을 하면 정책이나 각종 법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
- 스와힐리어는 언어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용되는 지역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는데, 언어가 지역통합에 있어서 분쟁 예방, 정치·경제적 통합, 사회적 응집력 제고에 크게 기여함.

1)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2)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

- 언어 다양성을 장려하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언어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지역 통합을 심화하기 위해 언어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
 - 유럽연합 가맹국들의 경우는 다언어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화했으며 개별 국가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아프리카의 언어 상황과는 다름.
 - 유럽연합은 언어 다양성을 존중해왔고 정책이나 법률을 회원국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한 나라 안에서도 수십여 개의 언어가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 때문에 초 종족적으로 통용되는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것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

3 후속대책과 향후 전망

문제점과 난제

- 탄자니아에 비해 스와힐리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의 일부 반감 해소하는 것이 선결 조건
 - 케냐나 우간다에 비해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독립 이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탄자니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덜 기울인 케냐와 우간다에서 스와힐리어가 명실공히 공적인 영역에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계획과 실천이 필요
 - 동아프리카 세 나라에 비해 스와힐리어의 사용이 제한적인 르완다와 부룬디에서도 스와힐리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
 - 언어 선택, 언어 사용, 언어의 사회적 위세, 언어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정책과 언어 계획을 공동체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료계획과 습득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탄자니아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면서 언어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
 - 사회의 엘리트 계층은 영어나 불어의 습득을 세계화 시대의 필수적인 언어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들 국제어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주목됨.
 - 독립 이후 스와힐리어의 확산과 위상 제고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던 탄자니아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되면서 영어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케냐의 경우 영어와 더불어 키쿠유, 루오, 루하, 캄바족 등 종족어들이 종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서는 많이 선호되어 스와힐리어 확산이 더딤.

- 케냐의 경우 우간다보다는 스와힐리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공식적 맥락보다는 비공식적 맥락에서 선호됨.
- 공식적 영역에서도 스와힐리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확산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
- 우간다의 경우 스와힐리어가 이디 아민의 폭정과 결부되어 스와힐리어의 확산과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대 종족 집단인 간다인들은 스와힐리어의 확산이 자신들의 언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
 - 그러나 민족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의 집권 이후 스와힐리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징후

스와힐리어의 위상과 향후 전망

- 스와힐리어가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공용어로 지정됨으로써 스와힐리어는 지역어를 넘어 국제어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형성
-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서 지정하는 것은 명목적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아프리카 공동체 입법 회의의 의사록 작성에서도 사용하는 등 실질적 실천이 필요
- 교육 체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혹은 필수과목으로서 스와힐리어를 채택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조건 창출이 긴요
- 스와힐리어를 명실공히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언어로 만들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요구됨. **EMERiCs**

출처

The Role of Kiswahili in the Integration of East Africa(John Habwe, 2009,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vol.2, no.8); Kiswahili and its Expanding Roles of Development in East African Cooperation: A Case of Uganda(Mwenda Mukuthuria, 2006,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15(2) 및 보도자료